

세대집단의 가치로 구분된 라이프스타일 유형과 그에 따른 권위주의 성향의 비교

황상민^{*} · 양진영 · 강영주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 서울시대안교육센터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세대집단의 가치를 기준으로 라이프스타일 유형을 규정하고, 이 유형이 가진 권위주의적 성향의 정도를 탐색하였다. 10대부터 50대에 속하는 318명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이 비교적 잘 드러나는 가치와 라이프스타일을 표현하였고, 자신의 권위주의 성향을 판단하였다. 연구결과, 한국사회에서 각 동년배(cohort)세대집단은 서로 다른 가치에 따라 특징적인 라이프스타일로 구분될 수 있다: 개인주의적 보보스형, 동질주의적 개방형, 물질주의적 봉건형, 현실적 추종형, 전통주의적 보수형. 권위주의적 성향은 동년배 세대집단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한국사회에서 권위주의적 성향은 연령집단에 따른 세대집단보다는 라이프스타일 유형이 유의미한 기준이 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향후, 본 연구에서 확인된 각기 다른 세대집단에서 보여진 라이프스타일 유형이 구체적인 생활방식이나 행동특성, 또는 의사소통 양식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세부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세대집단, 세대특성, 가치, 라이프스타일유형, 권위주의 성향, 개인주의적 보보스형, 동질주의적 개방형, 물질주의적 봉건형, 현실적 추종형, 전통주의적 보수형

월드컵 응원 열풍, 반미 촛불 시위, 미군 주둔지 및 김정일 규탄 모임, 그리고 지난 16대 대통령 선거는 한국사회에서 새삼스럽게 세대논쟁 바람을 불러 일으켰다. 거대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세대차(generation gap)'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이기도 하다. 부모-자녀, 상사와 부하직원, 기성세대와 청소년 세대 등의 구분은 세대차의 문제를 더욱 부각시킨다. 게다가,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의 전이 과정에서 세대차의 문제는 생활 방식과 삶의 틀을 구분짓는 중요한

개념이 된다. 인터넷을 놀이공간으로 하고, 컴퓨터 게임에 몰두하는 청소년 세대와 디지털 매체에 의해 아이들이 망가진다고 우려하는 부모세대처럼 각기 다른 세대간의 시각차이는 세대차의 문제가 단순히 컴퓨터를 사용한 정도나 경험의 차(差) 이상이라는 점을 인식시켜준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세대차는 대개 '연령'의 차이와 함께 사고, 태도, 행동방식의 전반에서 막연히 '다를 것이다'라고 믿는 추측 이상이 되기 힘들다. 아마도 그것은 그 세대차의 정체를 판단하는 기준을 분명하게 찾기

^{*}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 (swhang@yonsei.ac.kr), 연세대 심리학과 박사과정(siru@yonsei.ac.kr), 서울시대안교육센터 온라인팀장 (mawoman@activelearning.or.kr)

이 논문의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힘들기 때문일 것이다. 설령 어떤 기준을 찾았다고 할 지라도, 자신과 다른 세대에 대해서는 그 차이가 크다고 생각하는 반면, 자신이 속한 세대집단에 대해서는 그다지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고 당연하게 여긴다. 즉, 특정 세대의 사람들을 판단할 때, 그런 '전반적으로 막연한 차이'는 서로 다른 세대를 비판하거나 이질적으로 여기게 하고, 자신이 속한 세대집단에 대해서는 잘 안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2001년 유니세프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청소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들은 17개 조사대상 국가들¹⁾ 중에서 어른이나 권위 인물을 존경하는 비율이 가장 낮았다²⁾. 이에 대해 대중매체를 통해 드러난 기성세대의 반응은 청소년 세대에 대한 우려로 표현되었다.

'너무나 슬프고 충격적이긴 하지만 위아래도 없이 질서가 무너진 우리 사회의 현실이 그대로 반영된 듯하다...(중략)... 핵가족화로 할아버지 세대와 단절되고 자녀수가 줄면서 부모들이 어린 자녀들을 한없이 풀어 키우는 게 문제다. 제멋대로 자란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간 뒤부터 갑자기 체벌이 동원되는 교육을 받으면서 반발심을 갖게 된다'(중앙일보, 2001-10-10).

이것은 세대차를 분명한 외적 지표 중 하나인 특정 연령대나 특정 한 단일 가치만으로 설명하게 될 때 종종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세대차에 대한 경험이나 설명이 혼란스러운 것은 세대차가 허상이라서가 아니라 구체적이지 않아서이다. 따라서 세대의 변화나 세대차 현상을 설명할 때, 그 사회의 어떤 세대집단이 어떤 가치들을 나타내는지를 명확히 밝혀내지 못하면, 사고와 행동으로 뚜렷하게 드러나는 세대집단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즉, 항상 세대간의 차이는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차이가 현실생활에서 경험하는 사고방식이나 행동표현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동년배 세대집단들이 경험하는 세대차의 구체적인 기준, 즉 가치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런 가치들은 다양한 세대집단이 만들어내는 심리적 경험이나 표현방식인 독특한 라이프스타일로써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이 경험하는 세대차로써 보다 분명하게 구체화되어 설명되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권위주의 성향의 정도를 동년배 세대집단과 라이프스타일 유형으로 각기 비교해 보고자 한다.

세대차와 권위주의 성향

세대차와 관련하여 산업화된 43개 국가를 조사한 한 연구(Inglehart, 1997)는 대한민국이 '가장 큰 세대차를 보이는' 사회라고 지적하였다. 더불어, 한국사회는 동일한 문화 속에서 '세대(혹은 나이)'에 따라 다른 행동양식과 가치관을 지니고 있다는 연구들이 무수히 제기되었다(구자숙·한준·김명언, 1999; 김명언·김의철·박영신, 2000; 나은영·민경환, 1998; 나은영·차재호, 1999; 박재홍, 1995, 1999; 차재호, 1985; 한규석·신수진, 1999; 한덕웅·이경성, 2003).

그리고 사람들의 다양한 가치관이나 행동양식은 한국 사회의 맥락과 환경의 변화와 맞물려 변화하고 있다. 나은영, 차재호(1999)에 따르면, 1990년대 말 한국사회에서는 젊은층과 고학력/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자신과 가족 중심의 개인주의'가 증가하고, 탈물질주의 가치의 증가하는 경향 이 주춤하면서 개인의 자기 주장성과 불확실성 수용 경향이 증가한다고 보고했다.

또 한국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인생관을 1970년부터 10여년 마다 네 시점에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Morris의 인생관척도로 알아 본 최근 연구(한덕웅·이경성, 2003)를 보더라도, 지난 30년 동안에 그들이 선호하는 인생관의 순위가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70~80년대의 대학생들은 이상을 달성하고자 자기수양을 추구하는 자기 내부 지향의 인생관이 가장 선호되었으나, 90년대의 대학생들은 정권의 민정이양과 아울러 경제발전에 근거

- 1) 중국, 마카오, 홍콩, 몽골, 한국, 미얀마, 라오스, 태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동티모르, 파푸아뉴기니,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 2) 우리나라 청소년 응답자의 13%(17개국 전체평균 72%)만이 '어른들을 매우 존경한다'고, 그들 중 20%(전체평균 2%)는 '어른들을 전혀 존경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권위있는 인물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전체평균 53%)가 '권위있는 사람을 매우 존경한다'고 했을 뿐, 절반 이상(52%)은 '권위있는 사람을 전혀 존경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를 두는 한국사회의 변화양상에 따라서 현실문제에 적극 대처하려는 대외 현실 지향의 인생관을 더 선호하였다.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서 대학생들은 자유로움과 감각적 쾌락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삶의 적응양식을 추구하는 인생관을 선호하고 있었다. 이들 연구자들은 이런 결과를 세대차의 출현으로 해석했다. 즉, 젊은층의 가치관은 주로 즐겁고 풍요로운 인생 중시, 정조관념 및 상하구별 경시, 그리고 개인주의 및 자기주장성의 증가와 관련된 가치들이라는 것이다(나은영·민경환, 1998; 나은영·차재호, 1999; 정철희, 1997; 한덕웅·이경성, 2003).

하지만, 세대차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연령집단'에 기초한 특정 동년배 집단들이 보이는 차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세대차'는 특정 사회에서 특정 동년배 세대집단이 가지는 대표적인 심리적·행동적 차이를 의미하지만, 이것을 단순히 동년배 세대 집단의 일반적인 차이로 보게 되는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속한 동년배 집단을 중심으로 이들의 심리와 행동특성을 마치 자신이 속한 세대집단의 속성으로 쉽게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차이는 사람들을 범주화하는데 쉽게 사용되기도 한다. 사실, 몇가지 지각적으로 특출한 범주들(예; 성, 인종, 나이)이 있으며, 이런 범주들은 보편적으로 사용된다(김혜숙, 1999). 특히, 한국사회에서는 성, 나이, 출신지역, 그리고 학력 등이 중요한 범주로 작동하며, 이 중에서 나이와 연관되어, 대개 특정 동년배 집단에는 고정적인 특성이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세대는 특정한 사람들을 범주화시키기 위해서 그 범주에 대해 일차적으로 유사한 연령대나 동년배 집단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구체화된다.

선입관이나 사회통념에 따라 집단 성향을 구분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권위주의 성향(authoritarian personality) 때문이다(민경환, 1989). 즉, 권위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사람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그 개인이 지닌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기보다는 사회의 관습적인 집단 기준으로 특정 개인을 판단한다. 이것은 권위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의 정보처리 성향에 관한 연구를 비롯해서, 조직 내에서 능력에 따른 수행평가나 법정에서의 유죄평결에 관한 연구, 그리고 선입관이나 사회적 통념에 따른 특정 개인에 대한 지각에 관한 일련의 연구들에서 확인되었다(민경환, 1989; 박수애,

1998; 서장혁, 2001; 송관재 등, 1999; Gaertner & Dovidio, 1986). 동년배 집단이라는 사회적 범주(social category)를 중심으로 특정 개인이나 세대차에 대해 언급하게 되는 것은 한국사회 전반의 권위주의 성향과도 깊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전통적으로 한국사회는 서열, 권위와 위계질서를 중시하며, 개인보다는 집단을 중시하는 수직적 집단주의 문화라고 여겨져 왔다. 그러나 개인-집단주의와 수직-수평의 두 축을 이용하여 각 문화권의 지배적인 특성을 비교한 연구들(Triandis, Chen, & Chen, 1998; Triandis & Gelfand, 1998) 뿐만 아니라, 한규석·신수진(1999)에 의하면, 한국사회의 가치와 문화가 수직적 집단주의에서 수평적 개인주의로 변하고 있다고 한다. 전반적으로 전통적 가치는 약하게 견지되고 있으나, 수직-개인주의자와 수직-집단주의자에게서 높게 나타난다고 결론지었다.

만일, 동년배 집단이라는 사회적 범주에 근거한 세대차의 인식이 개인을 비롯한 한국사회의 권위주의적 성향과 관련이 있다면, 다양한 동년배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의 권위주의 성향을 살펴봐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사회에서 권위주의는 항상 동년배 집단을 구분하는 중요한 특성이었기 때문이다(최상진 등, 2000). 한 예로, 50대 이상의 윗세대에게 권위주의적 태도는 쉽게 허용되고 수용된다. 하지만, 개인주의, 합리주의 및 능력과 업적중심주의 가치관을 받아들인 신세대들에게는 이것은 납득하기 힘든 상황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래서, 사람들은 연령으로 구분해서 기성세대는 권위주의 성향이 강하고, 청소년세대는 그렇지 않다고 쉽게 생각하게 된다.

세대와 라이프스타일

한국사회의 세대집단을 심리적 특성을 기준으로 구분해 보려는 시도는 '심리적 세대모형'에서 시작되었다(황상민, 1999; 황상민·양진영, 2001; 황상민·양진영, 2002). 한국사회 속의 '심리적 세대모형'에 관한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의 구성원을 이루는 다양한 동년배 집단들이 공유하는 역사적 사건, 행동방식, 의식특성을 생애주기상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해방전후복구세대', '근대화세대', '경제부흥기세대', '민주화세대', '자율화세대', '신인류세대'로 구분하였다. 이 모델에서는 세대집

단을 '전통적 가족주의', '전통적 집단주의', '개인주의', '문화적 개방성', '물질주의(적 삶)', '사회적 의식', '능력과 역할주의', '전통위계의식' 등 8개의 가치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심리적 세대모형에 기초하여 황상민·양진영(2002)은 20-30대 성인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6개 세대의 특징적인 가치들과 사회적으로 표상된 각 세대에 대한 이미지가 비교적 일치하였다. '해방전후복구세대'와 '근대화세대'는 전통가치에 기반을 둔 모습이었으며, '경제부흥기세대'는 물질주의적 성공과 사회적 성공에 전념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민주화세대'는 개혁세대로서, '자율화세대'는 새로운 것을 감각적으로 수용하는 개방적 성향의 이미지이며, '신인류세대'는 자기표현을 마음껏 뚜렷하게 하는 이미지였다. 이와 더불어 해방전후복구세대는 '전통·보수형'으로, 근대화세대는 '중도·안정형'과 '전통·보수형'으로 세분화되었다. 경제부흥기세대는 '중도·안정형'으로, 민주화세대는 '중도·안정형'과 '사회·개혁형'으로, 자율화세대는 '사회·개혁형'과 '개인·개방형'으로, 신인류세대는 '개인·개방형'의 이미지로 각기 표현되었다. 이는 세대차란 바로 특정 집단이 가지는 가치와 이미지의 차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생각하게 만든다.

이런 연구결과는 한국사회에서의 세대차에 대한 심리학적 논의와 탐색이 단순히 동년배 집단(즉, 연령집단)에 따른 사회적 범주로 구분될 것이 아니라, 심리적 특성이나 사회적 가치 판단에 기준하여 상호 구분되는 특정 집단 간의 차이로 설명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동일한 세대집단에 속하는 사람들도 개인의 가치와 경험에 따라 세대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또 이런 차이는 바로 동시대의 사회적·문화적 현상을 다르게 받아들이는 기준이 된다.

사실, 개인의 가치관과 다양한 심리적 과정(예; 인지, 동기, 태도, 행동) 간의 관계에 대해 잘 설명된 심리학 이론을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가치관이 여러 사회행동에 관한 여러 신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Ajzen, 1988)나 가치관이 생활목표의 설정에 기여함으로써 인지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Markus & Wurf, 1987)에 관해 부분적으로 연구되었다. 이런 연구들은 가치들이 생활목표의 설정, 삶의 지향성이나 행동양식에 대한 신념을 넘어서 판단과 행동에 연결(Rokeach, 1968)된다고 가정

한다. 그리고 이런 가치들은 개인의 삶 속에서 단일 가치나 나열된 가치들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기에 따라 정리된 가치체계(value system) 속에 놓여 있으며, 이런 가치체계는 개인마다 다르고, 사람들은 그런 가치체계에 의존해서 갈등을 해소하고 자존심을 유지하고 향상시킨다(김홍규, 1998). 결국, 개인이 갖고 있는 가치의 중요성은 그가 추구하는 활동, 관심, 의견들이 무엇인가를 결정하게 만들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개인이 추구하는 삶의 모습인 라이프스타일(lifestyle)³⁾로 나타난다(한덕웅·이경성, 2003).

라이프스타일은 사회전체 또는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타인과 구별되는 특징적인 생활양식을 의미하고(Lazer, 1963), 사람들이 개인적 관계를 조직하고 자원을 사용하며, 사회 및 자연환경과 관계를 맺는 방법을 의미한다(Nickols & Nickols, 1980). 따라서 개인의 가치체계에 따라 특정한 라이프스타일을 유지해 나가며, 이는 특정 문화나 특정 집단을 구별할 수 있게 한다.

라이프스타일의 개념은 사회학을 비롯한 사회과학분야에서 집단과 계층의 차이를 표현하는 개념으로 발전되어 오다가, 미국의 경우에는 1960년대에 들어서 마케팅에서 응용되기 시작하였다. 한국에서는 과거 몇 년 전부터 여론조사 및 소비자행태에 대한 관심 고조에 힘입어 일부 조사기관이나 광고회사들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라이프스타일 연구를 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관이나 광고회사들의 연구는 비체계적인 양식으로 진행되어서 그 결과들을 일반화하고 학문적으로 축적하는데 문제가 있어 보인다(박성연, 1996; 채서일, 1992). 게다가 한국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한 소수의 연구들(박성연, 1996; 채서일, 1992)조차도 라이프스타일 분석 모형이 한국의 고유 특성에 적합한지 혹은 이론적 관점이 객관적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심리적 세대모형에 기초한 황상민·양진영(2002)의 연구에 의하면, 각 세대집단(혹은 동년배집단)은 특징적인 가치들로 뚜렷하게 표현되고,

3) 라이프스타일이라는 개념은 사회학자인 막스 베버(Max Weber)로부터 출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베버의 견해에 의하면, 모든 사회는 상이한 계급뿐 아니라 명백히 다른 생활양식과 세계관을 지니고 있는 여러 집단층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서법석, 1997; 김홍규, 1999).

이런 가치들이 각 세대에 대한 이미지(혹은 사회적 표상, social representation)를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음이 주장되었다. 이 결과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세대 혹은 세대차 현상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단순히 연령적으로 구분한 세대개념보다 가치를 기준으로, 그것들이 현실 생활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라이프스타일로 보다 분명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황상민·양진영, 2002).

따라서 본 연구는 다양한 동년배 세대집단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가지는 가치들을 발견하고, 이를 기준으로 라이프스타일을 구분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라이프스타일 유형들이 갖는 권위주의 성향의 정도를 살펴볼 것이다.

방 법

조사대상자

본 연구의 참가자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고등학교, 대학교와 여러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성인남녀였다. 조사는 연구자가 학교나 사업장을 방문하여 시행하거나 지인(知人)을 통해 실시하였다. 연구기간은 2001년 11월 25일부터 12월 10일에 걸쳐 약 2주 동안 진행되었다. 총 327부가 회수되었으나, 불성실한 응답이 포함된 사례를 제외하고, 최종분석 대상자는 모두 318명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을 성별과 연령대로 구분하면, 표 1에 나타나 있다. 대부분의 조사대상자들이 학생과 직장인(257명)의 범주에 속했다. 이들이 어릴 때 자라난 환경은 주로 서울(148명), 인천·경기(48명)지역이었으며, 뒤를 이어 부산·경남(32명)과 대구·경북(24명)지역이었다.

도구와 절차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척도는 세대특징적인 가치 척도와 권위주의적 성향 척도였다. 세대별 특성을 반영하는 가치 척도는 황상민·양진영(2002)의 연구에서 확인된 57개 문항과 심리적 세대 모형에 기초한 6개 세대를 상징하는 문항들로 이루어졌다. 선행 연구에서 확인된 한국 사회의 다양한 세대를 나타내는 문항들 이외에 '사이버공간에서 나를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 '자유롭고 쉽게 수정할 수 있는 정보전달 방식에 익숙하다',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을 표현할 수단이나 능력이 부족하다'와 같은 자기 표현적 가치를 반영하는 문항들이 추가로 포함되었다. 특히, 결혼관('자신의 일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배우자를 선호한다', '결혼이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남녀가 함께 생활할 수 있다'), 직업관('전문적인 직업을 선호한다'), 성공관('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고등교육을 받아야 한다', '사회적으로 성공하는데 본인의 노력이 중요하다'), 소비관('무조건 절약하기 보다는 어떻게 소비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집이 없더라도 차는 있어야 한다'), 국제관계관('일본에 대한 반감이 크다', '우리와 다른 이념은 경계해야 한다')과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의 가치를 반영한다고 생각되는 문항들이 추가되어 모두 68개 문항이 만들어졌다.

표 1. 조사 대상자의 성별과 연령대별 사례수

구 분	남 자	여 자	계
50대(50~59세)	24	13	37
40대(40~49세)	27	44	71
30대(30~39세)	29	19	48
20대(20~29세)	69	40	109
10대(16~19세)	3	50	53
계	152	166	318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세대의 가치 척도에는 한국사회와 문화에 기초한 세대 특성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와 집단 성향에 관한 심리적 특성도 고려하였다. 그것이 바로 수평적-수직적 차원과 개인주의적-집단주의적 차원에서 가치를 측정한 Triandis(1998)의 '개인주의-집단주의' 척도이다. 그는 각 개인이 속한 사회 및 문화의 유형을 수평적-개인주의적 문화, 수평적-집합주의적 문화, 수직적-개인주의적 문화, 그리고 수직적-집합주의적 문화의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 구분은 각 사람들이 자신이나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신념, 가치, 믿음, 행동규범을 이룬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사회의 세대특성에 기초한 가치 척도의 68개 문항과 Triandis(1998)의 척도의 16개 문항을 포함한 총 84개 문항으로 가치와 라이프스타일을 평가하였다. 연구참가자들은 각 문항들에 대해 자신이 동의하는 정도를 평정하는 Likert 척도 형식(1: 전혀

그렇지 않다~6 : 매우 그렇다)으로 판단하였다.

더불어, 권위주의 성향을 측정하는 도구에는 민경환 (1989)이 만든 한국판 권위주의 척도가 사용되었다. 총 35개 문항으로 구성된 이 척도는 원래 5점 Likert 척도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나, 본 연구에서는 가치와 라이프 스타일 척도와 동일한 척도 기준을 가지기 위해, 6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6 : 매우 그렇다)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다양한 동년배 집단에 존재하는 세대의 특성, 가치, 라이프스타일, 그리고 권위주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동년배 세대집단을 구분하여 각 자료를 탐색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먼저, 각 척도에 대한 참가자들의 반응을 통해서 동년배 구분없이 모든 세대에 적용될 수 있는 가치들을 나타내는 주요 요인을 찾아내고, 그것을 기준으로 군집분석을 통해 라이프스타일 유형들로 분류하였다. 또한 각 동년배 집단마다 세부적으로 대표적인 라이프스타일 유형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였다. 둘째, 동년배 세대집단(즉, 연령집단)과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있어서 권위주의 성향의 정도가 어떻게 차이가 달라지는지를 비교하였다.

결 과

세대특징적 가치요인과 라이프스타일 유형 확인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이 속하는 5개의 동년배세대집단을 중심으로 이들이 중시하는 가치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전체 응답자들의 84개 문항에 대한 반응을 기초로 한국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대표적인 가치 요인들을 추출하였다. 각 동년배 세대집단은 이렇게 추출된 요인에 의해 각기 유사한 속성을 가진 유형들로 구분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유사성 판단은 가치 요인에 기초한 군집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세대의 가치를 반영하는 68개 문항들에 대한 요인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varimax rotation)한 결과, 스크린 플롯에 따라 8개 요인이 추출되었다(표 2). 추출된 8개 가치 요인마다 문항요인값이 .4이상인 문항들만 추출하여 총 39개 문항으로 정리되었으며, 이 문항

들 간의 신뢰도(Cronbach α)는 .72였다. 표 3에는 가치들이 8개 요인(가부장적 태도, 남아선호, 사이버보헤미안, 개방성, 부르조아, 여피, 전통가치, 사회의식)으로 각기 분류되는 39개 문항과 각문항 요인값이 제시되었다.

‘가부장적 태도’로 명명된 요인은 남성의 주도적이고 권위적인 역할과 그에 따른 순종을 강조하는 문항들이 묶였고, ‘남아선호’가치는 성역할 고정관념에 근거한 전통적이고 비합리적인 남아선호사상에 관련된 문항들이 묶였다. 현실세계나 사이버 공간에서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는데 익숙하고, 항상 자신을 발전시키고 싶어하며, 자유, 평등, 적극성과 관련된 문항들은 ‘사이버보헤미안’적인 가치로 명명하였고, 다른 이념, 성, 문화와 상관없이 서로 다른 것들을 수용하고 표현하는데 있어 호의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문항들은 ‘개방성’ 요인으로 이름붙였다. 부르조아적 가치는 자신을 포함한 가족의 경제적 풍요를 추구하며, 돈이 자신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될 때에 비로소 가치롭고, 성공하기 위해선 타고난 개인의 배경이나 연줄이 중요하다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여피가치는 성공이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것으로 보고, 이를 위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전통가치에 기초한 라이프스타일이 기본질서이자 시대변화와 무관한 원칙의 하나인 서열에 대한 존중하고 전통적 가르침에 대해 존중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사회의식을 나타내는 요인은 정치나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 일 중심적 태도와 관련되어 사회 전반에 대한 의식이나 관심을 알아보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은 수평적·수직적 차원과 개인주의적·집합주의적 차원으로 4개 문화적 지향성을 측정하는 Triandis(1998)의 16개 문항도 별도로 요인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varimax rotation)하였다. 결과에 의하면, 원래

표 2. 세대특징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요인분석 결과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요인7	요인8
고유가	7.28	5.35	2.84	2.38	2.22	1.81	1.73	1.60
설명변량(%)	13.48	9.90	5.26	4.40	4.11	3.36	3.19	2.96
누가설명량(%)	13.48	23.38	28.63	33.03	37.14	40.50	43.69	46.65

표 3. 8개 가치요인들의 명칭, 문항, 그리고 문항들의 요인부하량

명	명	문	항	요 인 값
가부장적 태도		· 일단 결혼한 이상 무슨 일이 생겨도 참고 산다.		.838
		· 가정에서 남편은 생계를, 아내는 양육을 책임져야 한다.		.732
		· 연장자에게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		.719
		· 결혼할 나이가 되면 누구나 당연히 결혼해야 한다.		.580
		· 남자는 대의를 위해 일해야 하므로 가사 일에 신경쓰지 않는다.		.569
		· 가족 내 문제는 가장이 결정한다.		.401
남아선호		· 딸아들 구별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이지만, 여전히 아들을 선호한다.		.818
		· 딸이든 아들이든 구별 없이 잘 키우면 된다.(R)		-.805
		· 가문을 이을 아이는 반드시 아들이어야 한다.		.718
		· 능력과 학력이 같다면 남자가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R)		-.544
사이버 보헤미안		· 자기계발이 삶의 목표이다.		.765
		· 자유롭게 쉽게 수정할 수 있는 정보전달방식(이메일, 문자메시지)에 익숙하다.		.716
		· 사이버공간에서 나를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		.630
		· 가정에서 가사 일을 남편과 아내가 분담한다.		.586
		· 다양한 외국문화를 수용하는데 개방적이고 적극적이다.		.506
개방성		· 자식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삶의 목표이다. (R)		-.718
		· 우리와 다른 이념(사회주의)은 경계해야 한다.(R)		-.659
		· 일본의 문화와 유행에 개방적이고 호의적이다.		.579
		· 결혼이외에 다양한 방법(동거, 공동주거)으로 남녀가 함께 생활할 수 있다.		.513
		·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나만의 개성을 마음껏 발휘한다.		.446
부르조아		· 돈은 즐기 위해 필요하다.		.694
		· 우리 가족이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658
		· 돈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 필요하다.		.629
		· 무엇보다 재미있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594
		·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배경이나 연줄이 중요하다.		.573
		· 자식의 미래를 위해 돈을 벌어야 한다.		.496
여 피		·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을 선호한다.		.850
		· 인기있는 직업을 선호한다.		.830
		· 성공의 척도는 물질적으로 풍요한 정도이다.		.485
		·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위해 고등교육을 받아야 한다.		.462
전통가치		· 나이든 어른들에게 본받을 점이 많다.		.660
		· “어른들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옛 말은 옳다.		.533
		· 일본에 대한 반감이 크다.		.524
		· 시대가 변해도 전통적인 가르침은 변함없이 지켜져야 한다.		.471
		· 인간관계의 상하서열은 사회의 기본원리로서 중요하다.		.423
사회외식		· 정치나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고 비판적이다.		.798
		· 정치나 사회문제에 별로 관심없다.(R)		-.750
		· 뉴스나 다큐멘터리보다 연예프로그램을 즐겨본다.(R)		-.573
		· 여가보다는 일이 더 중요하다.		.437

(R) 표시된 문항은 부정적 문항으로 역채점한 문항임

연구(Triandis, 1998)에서 보고된 대로 문항들이 4개 요인으로 묶였다. 여기서도 개별 항목들의 요인값이 .4 이상인 문항들만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보다 나를 믿는다’ 문항은 제외되었다. 조사대상자들의 반응으로 평가한 이들 15개 문항들 간의 신뢰성은 .50였다. 표 4에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Triandis의 문항들의 범주

표 4. Triandis의 문화패턴에 관한 요인들의 문항들과 요인부하량

범 주	문 항	요 인 값
문 화 패 턴	수직적 개인주의 (VI)	· 일이나 공부에 있어서 나는 남들보다 잘해야 한다. .782
		· 이기는게 최선이다. .671
		·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보면 괜히 긴장되고 신경이 쓰인다. .597
		· 경쟁하는 것은 당연하다. .516
	수직적 집합주의 (VC)	· 가족은 무슨 일이 있어도 똘똘 뭉쳐야 한다. .784
		· 내가 힘들더라도 가족을 위해서라면 희생해야 한다. .726
		· 자식은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게 당연하다. .532
		· 자신이 속한 집단(조직)이 내린 결정을 따라야 한다. .518
	수평적 집합주의 (HC)	· 나는 사람들과 만나는 게 좋다. .746
		· 주변사람이 잘 되는 건 내게 중요한 일이다. .637
		· 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게 좋다. .502
		· 주변사람이 상이나 칭찬을 받으면 나까지 왓지 자랑스럽다. .475
	수평적 개인주의 (HI)	· 가끔은 내 일만 한다. .694
		· 남과는 다른 나만의 개성이 나에게서 매우 중요하다. .455
		· 대부분의 경우 나를 믿지 남을 좀처럼 믿지 않는다. .417

와 요인값이 제시되었다.

수직적 개인주의는 우열(혹은 위계질서)에 기초하여 다른 사람들을 경쟁의 대상으로 여기고 남들보다 뛰어나고자 하는 성향을 나타낸다. 이에 비해, 수직적 집합주의는 자신이 속한 집단(가족이나 조직)을 위한 의무와 희생을 순순히 감당하는 가족중심의 전통적 가치관을 다른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수평적 집합주의 성향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시하며 서로 협력하는 것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며, 성공 역시 주변사람들과 함께 나

누르는 태도에 관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평적 개인주의의 요인은 자신이 중심이 되어 자신만의 개성을 발휘하는 것에 높은 가치를 둔다.

세대집단의 가치에 의한 라이프스타일 유형 구분

요인분석을 통해 확인된 12개의 가치 요인의 유사성 정도에 따라 몇 개의 군집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위해 K-means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였고, 군집수의 결정은 군집들의 크기가 고루 분산되어 있는지,

표 5. 군집분석에 의한 5개 유형 간의 12개 요인들의 비교

	유 형					평 균	표 준 편 차
	물질주의적 봉건형	개인주의적 보보스형	현실적 추종형	동질주의적 개방형	전통주의적 보수형		
가부장적 태도	2.95	2.07	2.76	<u>1.84</u>	3.73	2.67	(.75)
남아선호	3.20	<u>1.70</u>	2.10	<u>1.59</u>	3.39	2.40	(.85)
사이버 보헤미안	4.61	4.84	<u>3.12</u>	4.71	3.58	4.17	(.77)
개방성	3.88	3.89	3.03	4.29	<u>2.88</u>	3.59	(.61)
부르조아	4.76	4.75	<u>3.78</u>	4.24	4.74	4.45	(.44)
여피	3.95	4.67	3.51	<u>3.11</u>	4.26	3.90	(.61)
전통가치	4.04	3.32	3.59	<u>3.08</u>	4.27	3.66	(.49)
사회외식	<u>3.00</u>	3.45	3.63	3.70	4.04	3.56	(.38)
수직적 개인주의	4.17	4.62	<u>3.31</u>	<u>3.41</u>	4.01	3.90	(.55)
수직적 집합주의	4.17	3.88	4.10	<u>3.41</u>	4.81	4.07	(.51)
수평적 집합주의	4.35	<u>3.95</u>	<u>4.08</u>	4.34	4.33	4.21	(.18)
수평적 개인주의	4.33	4.32	<u>3.45</u>	4.14	4.10	4.07	(.36)

그리고 군집들간의 유사성 및 중복성이 극소화되고 있는지를 고려하여, 결과적으로 5개의 군집을 발견하였다. 표 5는 5가지로 구분된 각 군집을 특징짓는 대표적인 요인과 그것들의 상대적인 크기를 나타낸다.

5개 군집 유형은 표 5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각 군집을 대표하는 라이프스타일의 특성에 기초하여 명명되었다: ‘물질주의적 봉건형’, ‘전통주의적 보수형’, ‘개인주의적 보보스형’, ‘동질주의적 개방형’, ‘현실적 추종형’.

‘물질주의적 봉건형’은 다른 유형들에 비해서 ‘부르조아’, ‘수평적 집합주의’, ‘수평적 개인주의’, ‘남아선호’와 ‘전통가치’의 점수들이 높았다. 반면, ‘사회적식’은 다른 유형들에 비해 훨씬 낮았기에, 사회변화에 대해 인식하지 않는 봉건적 가치를 대표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 유형은 또한 성역할 고정관념, 상하서열적 관계와 같은 전통적 가치를 존중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따라서 이들은 성공하기 위해 집안이나 학벌을 비롯한 전통적인 도움을 중요하게 여기며, 가족과 자신을 위해 돈을 벌고 즐거운 삶을 영위하는데 사용하는 것을 가치롭게 여긴다. 그러나, 다른 유형들과 달리 공공의 문제, 즉 사회나 정치문제에는 관심이 없다.

‘전통주의적 보수형’은 ‘가부장적 태도’, ‘남아선호’, ‘부르조아’, ‘전통가치’, ‘사회적식’과 집합주의적 성향(‘수직적 집합주의’와 ‘수평적 집합주의’)이 높았다. 하지만, 이들은 ‘개방성’에서 다른 유형들에 비해 훨씬 낮아 보수적인 성향이 더 강하게 드러났다. 이들의 보수적 성향은 다른 한편으로 전통적 가치관과 기존의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고 비판적이다. 이들의 라이프스타일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속한 조직이나 집단을 위해 희생하고 의무를 다하지만,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은 다소 경직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유형은 자신과 다른 것에 대해 경계할 뿐만 아니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주요 특성이라고 해석된다.

‘개인주의적 보보스형’은 개인주의적 성향(‘수직적 개인주의’와 ‘수평적 개인주의’)은 ‘사이버보헤미안’, ‘부르조아’와 ‘여파’에서 높은 편이다. 하지만, ‘수평적 집합주의’와 특히 ‘남아선호’는 다른 유형들에 비해 낮았다. 이 유형의 경우, 자기가 중심이 되어 개성을 마음껏 표현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한다. 자기 변화를 추구하는 이들은 다른 사람들과 경쟁과 물질적인

사회적 성공을 원하며, 고등교육과 타고난 배경, 연줄을 이용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동질주의적 개방형’은 다른 유형들에 비해서 ‘개방성’과 ‘수평적 집합주의’가 높았다. 특히, 이들은 전통가치를 비롯해서 ‘가부장적 태도’, ‘남아선호’, 그리고 수직적 성향(‘수직적 개인주의’와 ‘수직적 집합주의’)이 낮았다. 이들은 상하서열, 우열이나 권위를 비롯한 전통과 가족중심에 전혀 가치를 두지 않으며,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도 관심이 없다. 대신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협력하며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안에서 서로 이질적인 것들에 대해 개방적이고 호의적인 것이 이들의 특징이다.

재미있게도 마지막 유형인 ‘현실적 추종형’은 다른 4가지 유형들과 아주 다른 특성을 보였다. 이 유형의 특성은 자신들을 나타내는 특별한 또는 선호하는 가치가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다. 대신에 ‘사이버보헤미안’, ‘부르조아’, 개인주의적 성향(‘수직적 개인주의’와 ‘수평적 개인주의’)과 ‘수평적 집합주의’ 등이 다른 유형들보다 훨씬 낮았다. 즉, 이 유형은 어느 곳에서도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지 않으며, 자신을 위한 투자나 자신만의 삶을 만드는 것을 힘들어한다. 개인주의적인 것들을 싫어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협력해서 일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다. 이 유형은 자신들을 대표할만한 뚜렷한 가치체계를 갖고 있지 못한 것이 가장 특징적이다. 이렇듯, 가치의 요인적 특성에 기초한 각 군집유형이 가진 성격은 부록 1에 보다 상세하게 제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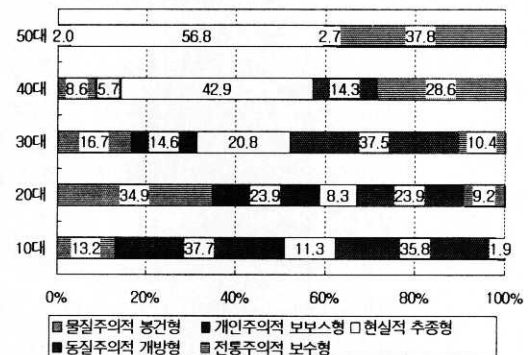


그림 1. 연령집단에 따른 라이프스타일 유형들의 분포

그림 1을 보면, 이 라이프스타일 유형들 중 어떤 것이 각기 다른 동년배 집단을 대표하는 유형인지 쉽게 알 수 있다. 이는 각 연령집단별로 5개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10대는 철저하게 자신이 중심인 삶을 추구하면서 재미, 물질적인 풍요와 사회적 인정도 중요한 ‘개인주의적 보보스형’이 이들 전체의 37.7%를 차지하였다. 뒤이어, 얼핏 보기엔 개방적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동질적인 사람들에게만 제한적으로 개방된, 즉 동료나 또래친구들에게는 너그럽지만 위계질서 속에서의 권위적 인물이나 전통적인 가치를 거부하는 편인 ‘동질주의적 개방형’이 35.8%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20대는 성역할 고정관념에 근거한 남아선호와 같은 전통 가치를 존중하면서 물질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물질주의적 봉건형’이 거의 이들의 35%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 10대에서도 주요하게 나타났던 ‘개인주의적 보보스형’(23.9%)과 ‘동질주의적 개방형’(23.9%)이 서로 비슷하게 분포되었다. 한편, 30대에는 10대와 20대에서도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였던 ‘동질주의적 개방형’(37.5%)이 이들을 대표하는 전형적인 유형으로 드러났다. 그 다음으로 자아나 자기 삶을 인생의 중심에 두지 못한 채 현실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현실적 추종형’(20.8%)이 차지하였다. 이외에 ‘물질주의적 봉건형’(16.7%), ‘개인주의적 보보스형’(14.6%), ‘전통주의적 보수형’(10.4%) 순으로 분포되어,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각 유형들이 10%이상의 균등한 분포를 보이는 것이 특징적이다. 마지막으로 40대와 50대의 경우에는 앞서 현실에 함몰된 채 자기 중심적인 삶을 추구하

지 못하는 ‘현실적 추종형’이 40대(42.9%)와 50대(56.8%)의 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보아, 다른 연령대에 비해 전형적인 유형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어 전통과 권위와 위계질서를 지키고 존중하며, 특히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은 ‘전통주의적 보수형’이 40대(28.6%)와 50대(37.8%)에서 또한 비중있는 분포를 보였다.

연령집단과 라이프스타일유형 간 권위주의 성향

10대부터 50대에 이르는 5개 연령집단과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권위주의 성향의 정도를 이원변량분석(two-way ANOVA)하여 표 6에 제시되었다. 연령집단에 따른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F_{4,31}=1.43, p > .05$) 즉, 연령에 따라서 권위주의적 성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반면,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대한 권위주의적 성향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F_{4,41}=12.21, p < .05$). 이를 다시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권위주의 성향을 일원변량 분석(one-way ANOVA)한 결과, 각 유형들 간의 권위주의적 성향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F_{4,312}=44.50, p < .05$). 특히, 권위주의적 성향에 있어서 유형 간 차이는 ‘물질주의적 봉건형’과 ‘전통주의적 보수형’, 그리고 ‘개인주의적 보보스형’과 ‘동질주의적 개방형’ 간에 컸다. 즉, ‘전통주의적 보수형’이 가장 높은 권위주의적 성향을 나타내었고, 그 다음이 ‘물질주의적 봉건형’이었다. 반면, ‘동질주의적 개방형’이 가장 탈권위주의적 세대유형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떤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속하

표 6. 연령집단과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권위주의 성향 평균점수 비교

구 분		라이프스타일 유형											
		물질주의적	전통형	개인주의적	보보스형	현실적	추종형	동질주의적	개방형	전통주의적	보수형	전	체
연령 집단	10대	106.0	(17.3)	114.3	(14.2)	103.7	(15.3)	82.2	(16.3)	124.0	(0.0)	100.7	(20.9)
	20대	111.6	(19.3)	101.3	(18.1)	95.6	(20.5)	81.3	(15.7)	119.6	(16.6)	101.3	(21.9)
	30대	103.8	(11.9)	102.4	(18.0)	101.1	(12.8)	84.7	(20.9)	108.4	(12.8)	96.3	(18.8)
	40대	105.0	(8.2)	85.0	(16.2)	100.2	(16.1)	83.6	(11.2)	119.4	(16.6)	102.9	(19.3)
	50대	129.0	(0.0)	0.0	(0.0)	106.1	(13.5)	85.0	(0.0)	128.9	(14.3)	114.8	(18.1)
	전체	109.5	(17.5)	104.9	(18.2)	101.7	(15.5)	82.7	(16.4)	121.1	(16.1)	102.4	(20.8)

() 표준편차

는지에 따라서 권위주의적 성향이 다르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연령집단과 라이프스타일 유형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F_{15,293}=1.16, p>.05$).

연령집단 내 라이프스타일 유형간 권위주의 성향

동일한 연령집단 내에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유형이 존재하고, 그 연령집단 내의 각 유형별 권위주의 성향이 다르고, 그 차이는 서로 다른 연령 집단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예상되었다. 10대의 경우, '개인주의적 보보스형'이 '동질주의적 개방형'의 경우보다 훨씬 높았고,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t_{(37)}=6.57, p<.05$, 그림 2의 왼쪽). 이와 유사하게, 20대의 경우에서도 '물질주의적 봉건형'은 '개인주의적 보보스형'이나 '동질주의적 개방형'보다 훨씬 높은 권위주의적 성향을 보였다. 이를 일원변량 분석한 결과, 이들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_{2,87}=21.88, p<.05$). 하지만, 20대에서 '물질주의적 봉건형'과 '개인주의적 보보스형' 간의 권위주의 성향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다른 유형에 비교하여 '동질주의적 개방형'의 권위주의 성향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이것은 권위주의 성향이 연령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기보다는 라이프스타일 유형의 차이를 반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0대의 경우, '현실적 추종형'이 '동질주의적 개방형'에 비해 뚜렷하게 높은 권위주의적 성향을 보였다($t_{(26)}=-2.256, p<.05$). 그러나, 40대에서 '현실적 추종형'은 '전통주의적 보수형'에 비해 뚜렷하게 낮은 권위주의적 성향을 보였다($t_{(48)}=-4.067, p<.05$). 이런 집단 간 차

이는 50대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50대의 '전통주의적 보수형'은 '현실적 추종형'에 비해 뚜렷하게 높은 권위주의적 성향을 보였다($t_{(33)}=-4.771, p<.05$).

논 의

한국사회에서 개인의 자아는 자신이 속한 맥락 내에서 상호작용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발달한다(조궁호, 1996; 최상진·김기범, 1999; 황상민·양진영, 2002). 연령에 기초한 위계적 질서를 강조하는 한국사회에서 동년배 집단은 한 개인의 발달에 있어서 주요한 발달적 맥락인 셈이다. 과거에 비교적 동질적이고 집단주의적으로 살아왔던 한국사회에서 지난 50여년간의 급속한 사회 문화적 변화는 바로 가치와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과정이기도 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에서 경험되는 '세대집단'은 연령에 의한 집단(동년배 집단) 구분보다는 가치에 의한 라이프스타일 유형으로 구분된다: '개인주의적 보보스형', '동질주의적 개방형', '물질주의적 봉건형', '현실적 추종형', 그리고 '전통주의적 보수형'. 그리고, 이 유형들이 각 세대집단마다 어떻게 분포되며, 이들이 보이는 권위주의 성향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는 특정 세대집단은 공통의 세대경험과 가치에 기초한 독특한 라이프스타일 유형을 보이지만, 그렇다고 동일한 세대집단 내에서 모두 동질적인 라이프스타일 유형을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일부지역의 청소년들(고등학생 및 대학생) 중에 39%만이 자신을 '신세대'로 규정한다던 조사연구(한국청소년개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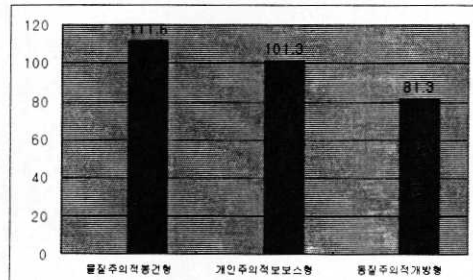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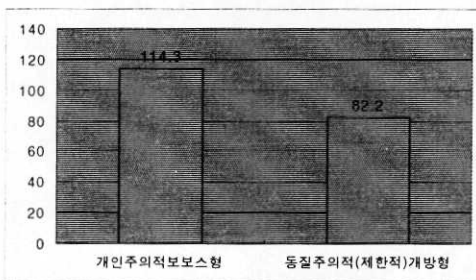


그림 2. 10대/20대의 대표적인 라이프스타일유형의 사람들간의 권위주의적 성향 평균비교
(주)왼쪽 : 10대, 오른쪽 : 20대

1994)의 결과도 비로소 쉽게 이해될 수 있다. 비록 동일한 세대집단의 동년배들이 유사한 사회문화적 경험을 할 가능성은 높더라도, 그 경험을 어떻게 수용하고 대처하는 가는 개인이 어떤 가치와 라이프스타일을 가졌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사회에서 전통가치를 중시하는 것으로 표상되던 기성세대들(40대~50대)이 신세대들(10대~30대)에 비해 권위주의적 성향이 높을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연령과 권위주의적 성향 간의 아무런 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오히려 권위주의적 성향은 라이프스타일 유형들에 따라 뚜렷한 차이가 드러났다. 그 중에서 전통주의적 보수형의 사람들이 가장 높은 권위주의적 성향을 보였고, 동질주의적 개방형들이 가장 낮았다. 이런 결과를 통해서, 흔히 하듯이 연령을 지표로 구분한 세대에 따라 권위주의적 성향의 정도를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 또한 권위주의적 성향을 비롯한 각종 전통가치는 구세대의 성향이고, 개방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가치들은 모두 신세대의 성향이라고 치부하는 것도 동일한 세대집단 내에 존재하는 다양성을 인식하지 못한 오류가 될 수 있다.

이제, 세대집단은 더 이상 '연령집단'과 동의어가 아니다. 우리는 동일한 사회 속에서 각기 다른 사회 문화적 경험을 가진 다양한 심리적 세대들이 있음을 제대로 인식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 한국사회에 살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세대차를 논할 때에는 단순히 연령에 따른 차이를 논하기보다는 가치에 의해 구분되는 라이프스타일 유형의 차이로 논하는 것이 훨씬 더 명확하고 설득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패스트푸드를 즐겨먹고 헐리웃의 영화에 울고 웃으면서도 반미운동에 참여하는 10대들의 모습과 행동은 연령적으로 구분한 세대개념보다 가치에 기초한 라이프스타일 유형의 개념으로 더 잘 이해될 수 있다.

한국사회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에 가치와 라이프스타일은 새로운 문제 인식의 틀로 등장한다. 어릴 때부터 컴퓨터를 장남감으로 삼고, 인터넷 공간을 놀이공간으로 자라온 청소년들은 기성세대의 어린 시절과는 판이하게 다른 경험을 하고 자란다. 자연히 이들 간에 중시하는 가치에 따른 라이프스타일도 다르다. 마치 농경시절에 지혜의 보고로써 존경받던 노인세대들이 산업사회

에 들어오면서 천덕꾸러기 신세로 변한 것 같이 당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관도 원하는 원하지 않던 그 시대의 사회적, 문화적 영향을 받는다. 즉, '다른 것'이 '그릇된 것'이나 '잘못된 것'이 아니다. 다만 각자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다른 가치관을 지닌 사람들 간에 나타나는 '다른 행동이나 태도'이며, 그것은 우리가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사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일이다. 이런 인식을 통해 비로소 현재 한국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세대 간의 갈등이나 혼란을 새롭게 설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서 맺고자 한다. 본 연구는 각기 다른 세대, 즉 다양한 동년배 세대집단들 간의 의미있는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수도권지역에 사는 10대부터 50대에 이르는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수도권이라는 제한된 지역, 연령집단별 피험자의 수의 편파(특히, 10대, 30대, 50대), 그리고 특히 10대 경우 한쪽 성별로 한정된 점이 본 연구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또한, 피험자들의 세대별 교육수준이나 사회경제적 지위를 비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각 연령집단의 대표적인 라이프스타일 유형들이 다르다는 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서도 다소 조심스럽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10대는 개인주의적 보보스형과 동질주의적 개방형이, 20대는 물질주의적 봉건형, 개인주의적 보보스형과 동질주의적 개방형이, 30대는 동질주의적 개방형과 현실적 추종형이, 마지막으로 4·50대는 현실적 추종형과 전통주의적 보수형이 대표적인 라이프스타일 유형이었다. 그러나, 이런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각 사람들이 현재 당면한 발달과업에 따라 다른 태도를 취하는 건 아닌지 고려해야만 한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주어지는 맥락들 속에서 다른 역할을 하도록 기대받기 마련이고, 이에 적응적인 사람이라면 주어진 역할에 적절한 태도를 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만으로는 각 동년배 세대집단 내에 서로 다른 라이프스타일 유형들이 분포하는 것이 어디까지가 세대별로 구별되는 특성이고, 또 어디까지가 발달과업에 따른 역할차이에서 발생하는 특성인지를 구분하기가 힘들다.

그러나 30대를 기준으로 어린 세대와 나이든 세대 간

구별되는 일정한 세대의 흐름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한국사회가 10년이란 짧은 기간을 기준으로, 그리고 동일한 연령대 내에서도 서로 구분되는 라이프스타일을 가진 유형들로 나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엄밀히 말해서 한 세대가 가진 특성이라고 말할 때는 이들이 10년, 20년 후에 다른 발달단계에 이르렀을 때, 이전의 다른 세대들과는 구별되면서 동일한 세대 내에는 공유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닐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

비록 본 연구가 갖는 제한점은 있을지라도, 감히 본 연구는 세대 혹은 세대차라는 현상에 대해 연령으로 세대를 구분하여 이런 현상을 설명하기보다는 그들이 가진 가치들에 의해 구분된 라이프스타일로 이해하는 것이 지금보다 더 분명하고 많은 것들을 설명해 줄 것이라고 제안한다. 그리고 세대집단의 가치로 구분된 라이프스타일 유형을 연구하는 것은 현실 생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실용적인 제안을 많이 할 수 있다.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을 실증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개인의 다양한 행동을 설명하고 예측하는데 중요한 정보와 활용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소비자들의 특성을 파악하여 상품을 개발하거나 판매하는 산업분야, 예를 들어, 제품개발이나 마케팅 등의 분야에서는 라이프스타일 유형의 특징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결합하여 일상생활부터 영화나 연극과 같은 문화기획이나 각종 산업분야에서 자신들이 주력하는 고객층의 기호를 보다 세분화하여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거나 마케팅전략을 세우는데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거시적으로 보면, 사회적 동향을 예측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사람들의 생활상의 변화(예; 사회/정치문제에 대한 태도나 의견, 경력개발이나 여가활용방식, 의사소통방식)를 앞으로써 미래의 한국사회의 모습과 더불어, 사람들의 다양한 의식이나 행동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제품이나 서비스개발에 이용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본 연구의 가장 큰 의의는 아마도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세대집단의 사람들에게 서로를 이해할 계기가 될 수 있는 '이해의 틀'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사실, 조직 내에서 혹은 사회적으로 세대 간에 갈등이 발생하면 서로 시시비비(是是非非)를 따지면

서 뭔가 이상적이고 동질적인 정체감으로 통합시킴으로써 해결하려고 애쓰다가, 낭패감을 겪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일례로 지난 3월 헌정사상 초유로 이뤄진 대통령과 평검사들의 공개토론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검사들이 대통령한테 대드는 것을 보면서 기성질서에 대한 도전이나 파괴의 주인공으로 보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대통령의 권위에 도전할 만큼 그들을 권위주의적이라고도 본다. 만일 여기서 서로 '다른 것'에 대해 막연한 거부감이나 두려움을 가진다면, 혹은 만일 '어차피 서로 다른 세대니까'라고 치부해 버리고 더 이상의 사소통하지 않는다면, 자신이나 주위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는 어렵고 서로 옳고 그름을 따지게 되기가 쉬운 상황에서 그 '다름'을 수용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워지면서 세대(다른 동년배 집단) 간의 골은 깊어지게 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구자숙, 한준, 김명언 (1999). 세대 격차와 갈등의 사회심리적 구조 심리과학.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과학연구소
- 김명언, 김의철, 박영신 (2000). 청소년과 성인간의 세대 차이와 유사성.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1), 181-204.
- 김의철 (1998). 한국기업문화의 이해와 발전방향: 기업에서의 인력개발을 위한 모형탐색. 인재개발연구, 2, 68-101.
- 김홍규 (1998). 한국 소비자의 가치체계연구: 궁극적 가치와 소비신념의 가치구조를 중심으로. 광고학연구, 9(4), 57-82.
- 김홍규 (1998). 가치와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소비자 특성 연구. 광고학연구: 일반, 10(2), 177-197.
- 김혜숙 (1999). 집단범주에 대한 고정관념, 감정과 편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1), 1-33.
- 나은영, 민경환 (1998). 한국 문화의 이중성에 관한 소고. 사회과학연구, 제24집, 3-16.
- 나은영, 차재호 (1999). 1970년대와 1990년대 간 한국인의 가치관 변화와 세대차 증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2), 37-60.

- 민경환 (1989). 권위주의 성격과 사회적 편견-대학생 집단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14, 146-168.
- 박성연 (1996). 한국인의 라이프스타일 유형과 특성. 마케팅연구, 11(1), 19-35.
- 박수에 (1998). 추상정보와 범례정보의 반복적 사용이 사회집단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심리학학 박사학위 논문.
- 박재홍 (1995). 신세대의 일상적 의식과 하위문화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사회학, 제29집(가을호), 651-683.
- 박재홍 (1999). 기성세대의 생애사와 세대차이 인지에 관한 연구: 질적 접근. 한국사회학, 제33집(여름호), 257-296.
- 서장혁 (2001). 피평가자의 범주정보와 평가자의 권위주의 성향이 수행평가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석사학위 논문.
- 송관재, 이훈구, 박수애, 홍영오 (1999). 권위주의 성격과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 정철희 (1997). 문화변동과 사회민주화: 탈물질주의의 가치와 공중-주도 정치. 한국사회학, 제31집(봄호), 61-83.
- 조금호 (1996). 문화유형과 타인인해 양상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15(1), 104-139.
- 중앙일보 (2001). 한국 청소년들 '어른 존경심' 17국 중 꼴찌. 2001-10-10일자.
- 최상진, 김기범 (1999). 한국인의 self의 특성: 서구의 self 개념과 대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2), 275-292.
- 최상진, 김의철, 홍성운, 박영숙, 유승엽 (2000). 권위에 관한 한국인의 의식체계: 권위, 권위주의와 체면의 구조에 대한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1), 69-84.
- 차재호 (1985). 70년대말에서의 가치, 태도 및 신념으로 본 한국인의 세대차. 사회심리연구, 2(2), 129-168.
- 차재호 (1987). 한국 사회에서의 가치관의 변화와 적응문제. 현대사회, 7, 126-142.
- 채서일 (1992). 체계적 분석의 틀에 따른 라이프스타일 연구. 소비자학연구, 3(1), 46-63.
- 한규석, 신수진 (1999). 한국인의 선호가치 변화-수직적 집단주의에서 수평적 개인주의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2), 293-310.
- 한덕웅, 이경성 (2003). 한국인의 인생관으로 본 가치관 변화: 30년간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7(1), 49-67.
- 황상민 (1999). 세대의 계열과 인생주기를 통한 미래사회 성격의 예측. 현상과 인식, 겨울호.
- 황상민, 양진영 (2001). 한국사회의 세대차와 한국인의 심리발달의 특성에 대한 탐색. 연세대학교 인간행동연구소 제1차 국제심포지움 자료집, 6월.
- 황상민, 양진영 (2002). 한국사회의 세대집단에 대한 심리학적 탐색: 전이적 공존 관점을 통한 대학생 집단의 세대 이미지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6(3), 75-93.
- 황상민, 양진영, 강영주 (2001). 한국사회의 세대집단의 이미지와 의식특성에 대한 발달심리학적 연구. 2001년도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07-113.
- Ajzen, I. (1988). *Attitudes, personality, and behavior*. Chicago: The Dorsey Press.
- Inglehart, R. (1997). *Modernization and post modernization: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societi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Gaertner, S. L., & Dovidio J. F. (1986). The aversive form of racism. In J.F. Dovidio, & S.L. Gaertner (Eds.) *Prejudice, discrimination, and racism* (pp. 79-80). San Diego: Academic Press.
- Lazer, W. (1963). Lifestyle concepts and marketing, in *Toward Scientific Marketing*, ed. S.A. Greyser, Chicago, IL: American Marketing Association, 130-139.
- Markus, H., & Wurf, E. (1987). The dynamic self-concept: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In M. R. Rosenzweig & L. W. Porter(Ed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Vol.38). Palo Alto, CA: Annual Reviews.

- Nickols, S. Y., & Nickols, S. A. (1980). Ethical issues in changing lifestyles. *Journal of Home Economics Summer*, 24-27.
- Rokeach, M. (1968). The role of value in public opinion research. *Public Opinion Quarterly*, 32.
- Triandis, H. (1998). Converging measurement of horizontal and vertical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7(1), 73-96.
- Triandis, H., Chen, X. P., & Chan, D. (1998). Scenarios for the measurement of collectivism and individualism.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54, 275-289.
- Triandis, H., & Gelfand, M. J. (1998). Converging measurement of horizontal and vertical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118-128.

부록 1. 5가지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특징적 가치범주와 유형 설명

유형	특징적 가치범주	설명
물질주의적 보건형	▲남아선호 ▲부르조아 ▲전통가치 ▲수평적 집합주의 ▲수평적 개인주의 ▽사회주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근거한 남아선호사상이나 상하서열적 관계와 같은 전통적인 가치들을 존중한다. 이들은 자신과 가족을 위해 돈을 벌지만, 그 돈이 자신과 즐거운 삶을 위해 쓰일 때 비로소 가치롭다고 여긴다. 특히 성공하기 위해서 집안, 학벌, 연줄 등 전통적인 도움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주위 사람들과 협력관계를 잘 유지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결과를 일구기도 하지만, 이들에겐 자신의 삶이나 개성 역시 중요하다. 또한 이들은 자신의 이외의 공공의 문제, 즉 사회나 정치문제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 특징적이다.
개인주의적 보보스형	▲사이버 보헤미안 ▲부르조아 ▲여피 ▲수직적 개인주의 ▲수평적 개인주의 ▽남아선호 ▽수평적 집합주의	이들은 철저하게 자신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나 상황들은 중요하지 않게 여긴다. 자신만의 개성을 마음껏 자유롭게 표현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변화, 발전시키고자 한다. 이들에게 타인은 경쟁상대일 뿐 협력의 대상이 아니며, 자신만의 성공이 중요하지 주변 사람들의 성공으로 기뻐하지 않는다. 이들은 재미있게 살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돈을 벌고자 하지만, 물질적인 풍요 못지않게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인기를 얻는 직업을 갖고 싶어한다. 성공을 위해 고등교육은 필수적이지만, 자신의 타고난 배경이나 연줄을 이용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현실적 추종형	▽사이버 보헤미안 ▽부르조아 ▽수직적 개인주의 ▽수평적 집합주의 ▽수평적 개인주의	이들은 그 어느 곳에서도(현실이나 사이버공간) 자기를 표현하는 방법을 모를 뿐만 아니라 제대로 드러내지도 못한다. 따라서 자신을 위한 투자나 자신만의 삶을 만드는 것을 힘들어하며, 물질적인 성공이나 타고난 개인의 배경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가치롭게 여기지 않는다. 또한 철저하게 개인중심적인 것을 싫어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협력하며 일을 진행하는 것도 싫어한다. 반면 가족이나 조직을 위해 희생과 의무를 감내하는 것에 다소 수긍할 뿐이다. 이들은 자신들을 대표할만한 뚜렷한 가치체계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가장 특징적이다.
동질주의적 (제한적) 개방형	▲개방성 ▲수평적 집합주의 ▽가부장적 태도 ▽남아선호 ▽여피 ▽수직적 개인주의 ▽수직적 집합주의	이들은 자신들과 비슷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잘 협력한다. 유유상종에 기반하며, 그 울타리안 내에서 맘껏 개성을 발휘하고 서로 다른 점들에 대해서 아주 개방적이고 너그럽다. 이들은 매우 동료나 또래 중심적으로, 그들의 성공을 마음껏 기뻐하고 나눈다. 반면 이들은 위계적인 상하서열과 우열성이나, 권위적이거나 전통적인 가족 중심적인 것에 전혀 가치를 두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다. 다만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과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안에서 이질적인 것들에 대해 호의적이고 개방적일 뿐이다.
전통주의적 보수형	▲가부장적 태도 ▲남아선호 ▲부르조아 ▲전통가치 ▲사회주의 ▲수직적 집합주의 ▲수평적 집합주의 ▽개방성	이들은 전통적인 가치관과 권위적이고 위계적인 사회질서를 존중한다. 기존의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고 비판적이다. 이들은 성역할 고정관념에 근거하여 매사를 판단하고 결정하며, 아무리 시대가 변한다할지라도 남성우월적 사고가 여전히 남아있으며, 자신이나 가족을 위해 경제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경향도 강하다. 전통적인 가족중심적 가치관을 가진 이들은 자기가 속한 집단이나 조직을 위해 희생하거나 의무를 다하는 것을 당연시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공동체의 성공에 관심이 많다. 이들은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이 다소 경직되어 자신과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경계할 뿐만 아니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특징이다.

▲: 가치범주의 성향이 뚜렷하게 높은 경우, ▽: 가치범주의 성향이 뚜렷하게 낮은 경우

Types of Lifestyles differentiated by Values in Korean Cohort Groups Reflecting Their Authoritarian Personality.

Leo Sang-Min Whang, Jin-Young Yang and Young-Ju Kang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Seoul Alternative Learning Community Network

This study has explored the types of lifestyles differentiated by values in different cohort groups and compared their relative levels of authoritarian personality. 318 subjects from Teenage groups to 50th cohort have expressed their values and lifestyles which were identified in daily life, in association with their authoritarian characteristics. The study has shown that there are five different types of lifestyles for each cohort group; the individualistic bobos, the egalitarian liberalistic, the feudal materialistic, the realistic follower, the traditional conservative. The level of authoritarian personality was not different from cohort groups, but it was significantly different by the types of lifestyles. The authoritarian personality has a strong relationship with the lifestyles, not by the age groups in Korean society.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specific relationship between the types of lifestyles and life & behavior patterns, such as political preference, and consuming behavior.

Key words : types of lifestyle, values, cohort group, authoritarian personality, the individualistic bobos, the egalitarian liberalistic, the feudal materialistic, the realistic follower, the traditional conservative.

원고접수 : 2003년 6월 11일

심사통과 : 2003년 7월 21일